

동중국해/남중국해 관련 중국 언론 동향

< '20.12.2(수) 해외수산협력센터 중국어 전문관 >

* 중국 언론이 사용한 표현(다오위다오 등)을 그대로 사용

□ 남중국해 관련 중국 동향

< 중국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 및 정부 최근 입장 ('20.11.24~'20.12.1) >

언론사	언론사 정보	주요 기사 내용
텅쑤망	중국 인터넷매체	▶ 필리핀 국방장관 “중미 충돌시 필리핀도 참전할 것”, 총알받이 자처하나 ▶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동남 국가들을 통해 대중(对中)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
왕이신문	중국 인터넷매체	▶ 대만의 러산 레이더기지는 미국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조기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
환구망	국제뉴스 전문 관영매체	▶ 남중국해 해역서 중미 충돌시, 필리핀이 휘말릴 가능성 매우 낮아...
평바이신문	중국 주요 신문	▶ [사설] 단기간내 남중국해에서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
인민일보	중국 공산당 기관지	▶ 남중국해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악의적으로 혼란을 조성하는 미국
중국신문망	대외소식 전달용 관영매체	▶ 중국 주 필리핀 대사관 미 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반대 성명 발표 (남중국해 내용 有)

○ (텅쑤망) 총알받이 되기를 자처하나? 필리핀 국방장관, “중미 충돌시
필리핀도 참여할 것¹⁾” (12.1)

-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왔으나 필리핀은 국방장관을 통해
“양국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게 된다면 참전할 것”이라 밝힘

1) 출처 : <https://new.qq.com/rain/a/20201201a0dric00>

- 최근 중국을 비롯한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RCEP(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)등 지역협력기구에 가입하자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미국이 일부 동남아 국가에게 무기나 자본을 줌으로써 중국에 대항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음

○ (텅쑤망) 새로운 국방장관 취임 후 바로 도발하는 미국, 야간 정찰기로 남중국해 정찰²⁾ (11.30)

○ (왕이신문) 남중국해를 포괄하는 러산레이더 기지로 미국에 조기경보정보 제공하려는 속내가 드러난 민진당³⁾ (11.30)

* 대만여당

-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중요한 요충지인 대만이 설치한 범위 3000m 레이더는 과하게 광범위한 범위를 감시하고 있음

- 중국 인민해방군은 유사시 해당 레이더 기지를 파괴할 능력이 있어 대만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레이더는 파괴되어 있을 것

○ (환구망) 남중국해 해역서 중미 충돌시, 필리핀이 휘말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⁴⁾ (11.27)

-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외부로 향하는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권쟁의가 있는 국가들을 이용하려 함

- 중국 국내에서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게 되면 필리핀이 원조를 받고 있는 미국측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음

2) 출처 : <https://new.qq.com/omn/20201130/20201130A0HONJ00.html>

3) 출처 : <https://dy.163.com/article/FSM4PQ4B05491QA2.html>

4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4513025750470145&wfr=spider&for=pc>

○ (평바이신문*사설) 단기간내 남중국해에서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⁵⁾ (11.26)

* 상하이 기반의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 주요 민영언론사

-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남중국해 사안에 정치적인 동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임
-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양국간의 공개 혹은 사적인 소통 매커니즘이 필요하나 현재 양국은 이러한 소통 매커니즘이 부재한 상황
-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위기발생을 방지하고 위기 발생 후 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함

○ (인민일보) 남중국해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악의적으로 혼란을 조장하는 미국⁶⁾ (11.24)

- 베트남을 방문한 오브리언 미 안보보좌관은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여 중국을 공격하는 언론을 조성하고 객관적 사실을 벗어난 냉전식 사고에 입각하여 발언
- 이에 대해 중국 주 베트남 대사관은 “중국은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와 관련된 쟁의는 관련 국가들과 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” 고 밝힘
- 이어 “미국은 소위 ‘중국위협론’ 을 가지고 베트남과 중국의 협력관계를 도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새로운 수단으로 사용할 국가를 찾기 위함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한다” 고 언급

5) 출처 : https://www.thepaper.cn/newsDetail_forward_10152217

6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4188287882871177&wfr=spider&for=pc>

○ (중국신문망) 중국 주 필리핀 대사관, 미 안보보좌관의 발언에 성명 발표⁷⁾
(11.24)

- 중국 주 필리핀 대사관측은 “필리핀 방문기간중, 남중국해문제, 홍콩과 관련한 시안을 의제로 다루며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”는 내용의 성명을 냄
- 성명에서는 “미국은 스스로가 거부한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을 들어 타국의 해양안보를 침해하고 있다” 고 언급
- 이어 대사관측은 “남중국해 쟁의의 당사국도 아닌 미국이 수없이 남중국해 해역에 군함과 군용기로 도발하고 민용기로 위장해 정찰활동을 한 행위는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화의 주도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” 이라고 밝힘

7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4178560558274380&wfr=spider&for=pc>

□ 동중국해 중국 동향

< 중국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 ('20.11.22~20.12.1) >

언론사	언론사 정보	주요 기사 내용
환구망	국제뉴스 전문 관영매체	▶ 왕이 외교부장의 평화 협력 건의에도 결의를 통해 다오위다오의 주권은 일본에 있다고 밝힌 일본
중국청년망	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소속 매체	▶ 왕이 외교부장 일본 방문해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세 가지 희망사항 언급
평바이신문	중국 주요 민영언론	▶ 왕이 외교부장, 일본서 동중국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건의
톈쑤망	주요 인터넷매체	▶ RCEP가입 후 마일 동중국해 부근에서 군사훈련, 요시히데 총리, “중국을 제제하기 위해”

○ (환구망) 일본, “다오위다오의 주권은 일본에 있다”고 밝혀⁸⁾ (1201)

- 11월 30일 중국이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*을 두고 일본
센가쿠섬 인근 이시가키시는 “중국의 언론이 일본 어선이 센가쿠에서 조업
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”고 밝힘

* 일전에 왕이 외교부장은 “불명의 어선이 다오위다오 부근 민감한 해역을 빈번하게
들어와 중국은 이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” 고 언급한 바 있음

- 같은날 일본 외무상도 제16회 베이징-도쿄포럼 개막식에서 다오위다오와 주변
해역 형국에 대한 우려를 밝힘

- 다오위다오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영토여서 주권에 대해서는 쟁의의 여지가 없음에도

8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4830598245787758&wfr=spider&for=pc>

일본의 정치인들은 다오위다오 문제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음

- 중국 외교부는 “중국 해경은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순찰을 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의 주권적 권리고 일본이 이에 대해 존중을 해 주길 바란다”고 밝힘

○ (중국망) 일본 올해 다오위다오에서 자연환경조사 및 개명 진행 시도할 것⁹⁾
(12.1)

○ (왕이신문) 왕이 외교부장, 방일기간 다오위다오 해역 평화개선 방향 제시해... 일본의 고위급 관료들, 개의치 않고 “다오위다오는 일본 영토”언급¹⁰⁾
(11.29)

○ (중국청년망) 왕이 외교부장 일본 방문해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세 가지 희망사항 언급¹¹⁾ (11.26)

- 25일, 일본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다오위다오와 관련해 “양측이 합의한 4개 원칙을 준수하고 민감한 해역에서 상황이 복잡해지는 행위를 피하며 문제 발생시, 즉시 소통하여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”고 희망사항을 밝힘

○ (평바이 신문) 왕이 외교부장, 일본서 “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동중국해를 평화의 바다, 협력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양국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길”이라 밝힘¹²⁾
(11.25)

○ (팅쑤망) RCEP가입 후 미·일 동중국해 부근에서 군사훈련, 요시히데 총리 “중국을 제제하기 위해”¹³⁾ (11.22)

9) 출처 : http://news.china.com.cn/world/2020-12/01/content_76965609.htm

10) 출처 : <https://dy.163.com/article/FSK5HEJU0534QWNR.html>

11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4377565691625640&wfr=spider&for=pc>

12) 출처 : https://www.thepaper.cn/newsDetail_forward_10136426

- 일본이 “이번 훈련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한 발언을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알 수 있음
- RCEP를 비롯한 지역협력조직이 만들어 지면서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‘외부인’ 미국과 충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

13) <https://new.qq.com/omn/20201122/20201122A0CGQZ00.html>